

◆ 17-9평 19~20번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윤동주, 「병원」-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박목월, 「나무」-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 17 경찰대 1차 33~37번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에비는 종이였다. ㉠뻘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 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뽕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
나……. 흙으로 바람벽 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갑오년(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닭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罪人)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天痴)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으려다.

찬란히 띄어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詩)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헛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혈떡거리며 나는 왔다.

- 서정주, 「자화상」

(나)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⑥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다)

시(詩)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 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개 밑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五臟)을 씻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33. (가)~(다)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상징과 직유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② (나)는 의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고뇌를 토로하고 있다.
- ③ (다)는 돈호법과 의인법으로 시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단정적인 어조를, (나)는 차분한 어조를 쓰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인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34. (가)~(다)에 드러난 시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 있는 반면, (다)는 그렇지 않다.
- ② (가)와 (다)는 믿고 따를 대상이 제시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 ③ (가)와 (다)는 자신이 속한 현실을 초월하려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
- ④ (나)와 (다)는 시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지만, (가)는 그렇지 않다.
- ⑤ (가), (나), (다) 모두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35.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노신(루쉰)은 중국의 근대 문학을 이끈 작가로, 항일 투쟁에 나섰다가 일본에 쫓기는 삶을 살았다.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 상하이 조계지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 ① 시적 화자는 노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있어.
- ② 절망 속에서도 굳센 결심으로 견뎌 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③ 노신의 '등불'은 시적 화자에게 굳건한 태도를 상기시켜 주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
- ④ 경제적 무능함에 대한 비난을 받던 화자는 결국은 노신을 본받아 생활고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 ⑤ 시적 화자의 고난은 개인적 삶에서 나오지만, 노신의 경우는 사회에 대한 이상과 관련이 있어.

36. ㉠의 함축적 의미를 '인물이 처한 환경'이라고 볼 때, 함축적 의미가 ㉠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인 현실이 절정에 달한 상태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감내하고 있다.
- ② 불의와 맞서 온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③ 미래에도 희망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④ 그동안 추구해 온 이상향이 실현되리라는 믿음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 ⑤ 어두운 시대에 적극적으로 맞서지는 못하지만 희망을 간직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0~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 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웃을 뿐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以心傳心) 의사(意思)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 번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장이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 올 뿐 아니라, 어떤 때에는 쏘삭쏘삭 알랑거리고, 어떤 때에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에는 공연히 뒤틀러 우악스럽게 남의 팔다리에 생채기를 내 놓고 달아난다. 새 역시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믿고 와 등지를 틀고, 지쳤을 때 찾아와 쉬며 꾸짖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厚待)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薄待)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그리고 친구가 오면 다행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하여 불행해 하는 법이 없다.

같은 나무, 이웃 나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나무는 서로 속속들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정하고 공감한다. 서로 마주보기만 해도 기쁘고, 일생을 이웃하여 살아도 싫증나지 않는 참다운 친구다.

그러나 나무는 친구끼리 서로 즐긴다느니보다는, 제각기 하늘이 준 힘을 다하여 널리 가지를 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더 힘을 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묵도(默禱)하는 것으로 일삼는다. 그러기에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향하며, 손을 쳐들고 있다. 온갖 나뭇잎이 우거진 숲을 찾는 사람이 거룩한 전당에 들어선 것처럼 엄숙(嚴肅)하고 경건(敬虔)한 마음으로 절로 옷깃을 여미고, 우렁찬 찬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理由)도 여기 있다.

— 이양하(李敷河)의 「나무」에서

(나) 오우가(五友歌)

윤선도(尹善道)

내 버디 몇치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의 돌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숫 벗과 또 더하야 머엇하리.

구름빛치 조타 하니 검기를 즈로 한다.

㉣ 바람 소리 몹다 하니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고즌 므스 일로 뛰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하야 프로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회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곳 뛰고 치우면 뉘 디거늘,
솔아, 너는 언디 눈서리롤 모르느다.
구천(九泉)의 불회 고든 줄을 글로 하야 아노라.

나모도 아닌 거시 플로 아닌 거시
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느다.
더러코 사시(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하노라.

작은 거시 노피 떠서 만물(萬物)을 다 비취니,
밤동의 광명(光明)이 너만하니 또 잇느다.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변인가 하노라.

(다) 서시(序詩)

윤동주(尹東株)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 바위

유치환(柳致環)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 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30. (가)~(라)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수동적인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과거를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현실을 도피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해 지은이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31. (가)에 나타난 '나무'의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교적이고 진취적이다.
- ② 주변의 사물들과 친화한다.
- ③ 세상사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 ④ 포용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
- ⑤ 자연의 질서와 섭리에 순응한다.

32.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다)와 가장 가까운 것은? [1.2 점]

- ①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해매이면서 /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 신석정, 「꽃덤불」
- ② 님이여, 당신은 백번(百番)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 뽕나무 뿌리가 산호(珊瑚)가 되도록 천국(天國)의 사랑을 받읍소서. /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 별의 첫걸음이여.
— 한용운, 「찬송」
- ③ 누구한테 머리를 숙일까 /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에 / 많이는 아니고 조금 / 벼를 터는 마당에서 바람도 안 부는데 / 옥수수 잎이 흔들리듯 그렇게 조금
— 김수영, 「꽃잎」
- ④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 순이(順伊),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 장만영, 「달 · 포도 · 잎사귀」
- ⑤ 오월(五月) 어느 날 그 하로 무덥던 날 /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 삼백(三百)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33.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의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

- ① 말도 안돼. 바람이 어떻게 별까지 갈 수 있지? 부끄럼 없이 살겠다고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하긴 세상이 험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 ② 참 멋있다. 별은 천상 세계에 속하고, 바람은 지상 세계에 있는 것인데, 끝에 가서 별이 바람에 스치는 것을 보니 이야말로 두 세계가 만나는 경지 아니겠어?
- ③ 이 시는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작품이야. 우리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 나갈 때, 지금과 같은 젊고 순수한 마음을 결코 잃지 말라는 것 같아.
- ④ 내 생각에 이 시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지은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항상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말씀하시거든.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말이야.
- ⑤ 이 시를 쓴 사람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직업이 그런 쪽일 거야.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말이야. 나는 그런 직업이 보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34. (다), (라)에서 '말하는 사람[화자(話者)]'의 공통적인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자기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 ②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려 한다.
- ③ 자기 성찰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④ 시련 속에서 신념을 다지고 있다.
- ⑤ 현실에서 오는 번뇌를 이기려 한다.

35.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무는 불행하다.
- ② 나무는 고독한 존재다.
- ③ 나무는 믿을 만한 존재다.
- ④ 나무는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⑤ 나무는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다.

36. ㉡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을 (나)에서 찾으려면?

- ① 구름빛치 조타 흐나 검기를 즈로 흐다
- ② 바람 소리 몹다 흐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 ③ 고즌 므스 일로 뛰며서 쉬이 디고
- ④ 풀은 어이흐야 프로논 듯 누르느니
- ⑤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37. ㉢의 시적 의미가 형상화된 시행을 (라)에서 찾으려면?

- ①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 ②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 ③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 ④ 흐르는 구름 / 머언 원뢰(遠雷)
- ⑤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38. ㉣~㉤ 중,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1 수능 13~17번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시(序詩)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 귀촉도(歸蜀途)

서정주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밝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 리(三萬里).
흰 옷깃 여머 여머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 리(三萬里).

신이나 삼아 줄 걸, 슬픈 사연의
울음이 아로새긴 육날 메뚜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 초롱에 불빛, 지친 밤 하늘
└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 그대 하늘 끝 호을로 가신 님아.

(다) 나그네

박목월

강(江)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南道) 삼백 리(三百里)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라)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R. Frost)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①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13. (가)~(라)에 나타난 '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가) : '나'가 걸어갈 길로, 미래의 소명을 가리킨다.
- ② (나) : '남'이 떠나간 길로, 이별로 인한 회한을 불러일으킨다.
- ③ (다) : '나그네'가 걸어가는 길로, 고독한 인생 여로를 암시한다.
- ④ (라) : '나'가 가지 않은 길로, 이상향에 이르는 길을 의미한다.
- ⑤ (가)~(라) : 인생이나 운명을 상징하는 길로 볼 수 있다.

14. 다음은 (가)의 시인을 회고한 글의 일부이다. 시는 곧 시인 자신을 반영한다고 할 때, (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그는 읽는 책에 좀처럼 줄을 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만큼 그는 결벽성(潔癖性)이 있었다.
- ② 오뚝하게 솟은 콧날, 부리부리한 눈망울, 한일(一)자로 굳게 다문 입, 그는 한 마디로 미남(美男)이었다.
- ③ 그는 이처럼 마음 속에서 시를 다듬었기 때문에, 한 마디의 시어(詩語) 때문에도 몇 달을 고민하기도 했다.
- ④ 시국(時局)에 대한 불안, 가정에 대한 걱정, 이런 가운데 하숙집을 또 옮겨야 하는 일이 겹치면서 그는 무척 괴로워하는 눈치였다.
- ⑤ 그의 성격(性格) 중에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받아야 할 것의 하나는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15.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

- ① 중환 :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쓴 작품이래. 그런데 농촌이 수탈된 마당에 술 익는 마을이 어디 있었겠어?
- ② 민희 : 그건 조금 지나친 지적 같아. 그 당시 시인은 아마 생활이 어려웠을 거야. 나그네처럼 먼 길을 힘들게 건다가 노을이 찾아오고, 술도 한 잔 하고 싶고, 그 허무한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닐까?
- ③ 인규 : 술과 노을이라……. 그거 이미지가 썩 잘 어울리는데, 밀밭 길이 주는 느낌과도 통하면서.
- ④ 석현 : 그래도 그렇지, 외줄기 길이 삼백 리나 이어지는 게 어디 있어? 구름에 달이 간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
- ⑤ 정인 : 그런 걸 상상이라 하는 거야. 그나저나 나도 이 시의 나그네처럼 여행이나 떠났으면 좋겠다.

16. ㉠에 나타난 화자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내 마음은 낙엽(落葉)이오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김동명, 「내 마음은」)
- ②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려운 길도
아득한 출렁임 흔들림 밑에
그것을 받쳐주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가 마땅히 있는 일이라! (박재삼, 「사람이 사는 길 밑에」)
- ③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虛空)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김소월, 「초혼」)
- ④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哀)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유치환, 「바위」)
- 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 「낙화」)

17. ㉠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보기> 시의 화자가 들려줄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당시(當時)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왔고
이제나 돌아왔나니 딴 데 마음 두지 않으리

- 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겠다고, 한번 선택한 길은 끝까지 가게나.
- ②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 않던가? 그때그때 지름길을 택해 가게나.
- ③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법이네. 가장 중요한 목표를 기준으로 갈 길을 택하게나.
- ④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듯, 이 길을 가면 저 길이 부러울 테니 소신을 갖고 한 길만 가게나.
- 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 하지 않던가? 한번 가면 끝까지 가야 할 길이니 처음 선택을 잘 하게나.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잠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들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꿍어 넘는 토방 텃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들이 되라 하네

[A]

- 신경림, 목계 장터 -

(나)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길게 부는 한지(寒地)의 바람
바다 앞의 집을 흔들고
 긴 눈 내릴 듯
 낮게 낮게 비치는 불빛
 지전(紙錢)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반쯤 탄 담배를 그림자처럼 꺼버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데로 내려간다.
 정박(碇泊) 중의 어두운 용골(龍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항구(港口)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는 수삼 개(數三個)의 눈송이
 하늘의 새들이 따르고 있었다.

- 황동규, 기항지(寄港地) I -

(다)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히 그림자를 떨어트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취,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 - 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
거릴 게다.

-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 윤동주, 사랑스런 추억 -

13. (가)~(다)의 시적 공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나루'는 떠남과 돌아옴,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는 등 애환이 깃들여 있는 공간이다.
- ② (나)의 '항구'는 여정(旅程)의 종착지이자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공간이다.
- ③ (나)의 '바다'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상이 실현되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희의 공간이다.
- ④ (다)의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공간이다.
- ⑤ (다)의 '정거장 가차운 언덕'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과 그리움이 담긴 공간이다.

14. (가)의 [A]를 바꾸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맞게 표현한 것은?

<보 기>

- 원시(原詩)의 발상을 활용한다.
-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잘 살린다.

- ① 산은 날더러 나무가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풀이 되라 하네 / 눈보라 몰아치면 숲 속에 몸 낮추고 / 바람 거세거든 강가에 누우라네
- ② 산은 날더러 별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달이 되라 하네 / 산등성이 넘어서 눈물을 글썽이고 / 강 언덕 지나서 해사하게 웃으라 하네
- ③ 산은 날더러 불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물이 되라 하네 / 고난의 때 오거든 어둠 속 불 밝히고 / 소생의 때 오거든 생명의 물 적시라네
- ④ 산은 날더러 새가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갈대가 되라 하네 / 눈보라 시리거든 산 너머로 날아가고 / 비바람 드세거든 강물 속에 잠기라네
- ⑤ 산은 날더러 햇살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안개가 되라 하네 / 암흑의 때 오거든 어둠을 살라 먹고 / 새벽녘 피어오르는 강 안개가 되라네

15. (나)를 쓴 시인은 이후에 같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이를 (나)와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기항지(寄港地) II

다색(多色)의 새벽 하늘
두고 갈 것은 없다, 선창에 불빛 흘리는 낮익은 배의
구도(構圖)
밧줄을 푸는 늙은 밧군의 실루엣
출렁이며 끊기는 새벽 하늘
밧고동이 운다
선짓국집 밖은 새벽 취기
누가 소리죽여 웃는다
축대에 바닷물이 튀어오른다
철새의 전부를 남북(南北)으로 당기는
마음의 마찰음(音) 끊기고
바람 받는 마스트의 검은 깃발
축대에 바닷물이 튀어오른다
누가 소리죽여 웃는다
아직 젊군
다색(多色)의 새벽 하늘.

- ① '기항지'라는 제목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관조적 어조에서 열정적인 어조로 바뀔으로써 시적 상황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어두운 하늘'이 '다색의 새벽 하늘'로 바뀔으로써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정박했던 배가 출항하고 있는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화자의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불안하고 우울했던 분위기가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로 바뀔으로써 화자의 심리 변화가 암시되고 있다.

16. 다음은 (다)의 시인에 관한 평전의 일부이다. (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그는 이상을 추구하는 시인이었다. 그의 시에는 '봄', '새벽', '아침' 등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시어가 많이 쓰인다.
- ② 그는 고뇌와 방황의 시인이었다. 그의 시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시어들이 나타난다.
- ③ 그는 자기 희생의 시인이었다. 그의 시에는 순교자적 희생을 통해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려는 실존적 결단의 태도가 자주 나타난다.
- ④ 그는 자아 성찰의 시인이었다. 그의 시에는 종종 '부끄러움'이라는 반성적 자기 인식의 시어가 직접적이거나 반영적인 진술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 ⑤ 그는 상실감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인이었다. 고향인 북간도를 떠나 평양, 서울, 동경 등 객지로만 떠돌았던 그의 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17. (가)~(다)의 시를 모아 학교 교지에 특집으로 수록한다고 할 때, 세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에 공통적으로 어울리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향을 찾아가는 길 ② 사랑이 머무는 자리
- ③ 역사의 현장을 찾아 ④ 삶의 여로(旅路)에서
- ⑤ 우정, 그 영원한 동반자

◆ 04-9평 14~18번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 [A]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

(나)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뜻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
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
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
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
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B]

①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쥘」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벨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 때글은: 때에 전.

(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鄉) -

1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목가적인 서정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는 묘사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현실 비판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
- ⑤ (가)~(다)에는 내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15. [A]와 [B]의 의미를 중심으로 비평문을 쓰고자 한다. 그 주
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의 본질적 의미
- ② 삶의 고난과 좌절
- ③ 세속적 삶의 비판
- ④ 삶의 신비와 동경
- ⑤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

16. '흰 바람벽'을 영화 스크린으로 가정하고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자아가 '흰 바람벽'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은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시적 자아의 고립적 상황을 강화한다.
- ② '흰 바람벽'에 비친 '무명서츠'의 그림자는 스크린에 비친 물체의 그림자를 연상시킨다.
- ③ '또 어인 일인가'는 '가난한 늙은 어머니'의 영상이 스크린에 갑자기 나타나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려낸다.
- ④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과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병치의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⑤ '흰 바람벽' 위로 지나가는 '글자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움직이는 글자들을 연상시킨다.

17. <보기>는 문화적 상징의 맥락에서 (다)의 시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다)의 시어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골 : 불안, 결핍, 순결, 금욕, 목상의 대상
 방 : 공포, 밀폐, 비밀, 몽상, 폐쇄적 환상
 어둠 : 혼돈, 기원, 성숙, 휴식, 물질적·정신적 힘의 교류
 바람 : 권능, 영감, 전달, 공기, 순수성과 열정
 개 : 감시, 추적, 통찰력,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매(靈媒)

- ① '백골'은 시적 자아의 빈약하면서도 정결한 삶을 상징한다.
- ② '방'은 시적 자아의 내면에 깊숙히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을 상징한다.
- ③ '어둠'은 시적 자아의 고통의 근원이자 영혼을 성숙시키는 존재이다.
- ④ '바람'은 시적 자아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대기의 힘을 의미한다.
- ⑤ '개'는 시적 자아의 영혼을 일깨워 우주로 안내하는 존재이다.

18. <보기>를 통해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화가 렘브란트가 가장 잘 이해하고 다루기 쉬운 모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자화상을 통해 얼굴 표현 방식 등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고독한 내면과 삶의 비애, 자기 확신, 그리고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가난으로 고통받았던 말년에 그린 두 폭의 자화상이 있다. 하나는 황금색 옷으로 치장하고 지팡이를 쥐고 앉아 있는 당당한 모습을 그린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태와 회한으로 가득한 얼굴을 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두 자화상이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자화상을 보는 기준이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模寫)하고 있는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는 화가의 삶의 역정과 영혼의 기록이 있다.

- ① (가)의 '갈대'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유사하다.
- ② 두 자화상의 묘사 기법의 차이는 (가)에서 '그'와 '갈대'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 ③ (나)에서 ㉠을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그린 동기를 설명해 준다.
- ④ (나)의 시인의 생애는 한 폭의 자화상으로 응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
- ⑤ 자화상의 인물을 통해 렘브란트의 내면을 읽는 것은 (다)에서 '나'를 시인 윤동주와 동일한 인물로 설정하고 시를 읽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 08-6평 13~18번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앓은 폐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회개,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A]

- 김소월, 「나의 집」 -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B]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다) ㉤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면서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14.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15.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황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18. (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A.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 도화(桃花)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 B.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싹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올쏘냐
저 임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A]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B]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 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 13-9평 27~30번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2」-

* 형형한: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A]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B]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C]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졌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D]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E]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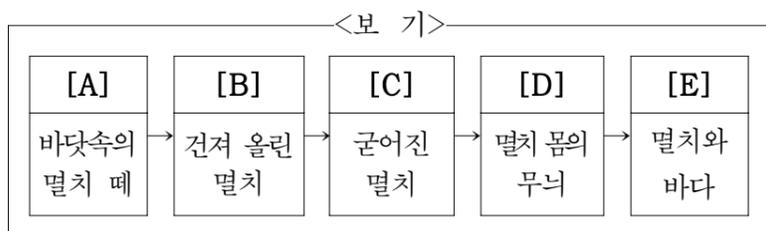
-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29.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20 수능 43~45번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굼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18 LEET 언어이해 10~12번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이츠는 어느 편지에서 “내게 지상 목표는 비극 한가운데서 사람을 환희하게 만드는 신념과 이성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라고 하면서, “동양은 언제나 해결이 있고, 그러므로 비극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오. 영웅적인 절규를 발해야 하는 것은 우리지 동양은 아니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대조는 기실 동서양분론에 기초를 둔 혼란 관념 이상의 것은 아니다. 이 대조가 어떤 진실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에이츠의 견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근대 한국시의 몇몇 순간들은 **비극적 황홀**을 볼 수 있는 에이츠의 만년의 시 「유리」에 비길 만하기 때문이다.

햄릿과 리어는 즐겁다
 두려움을 송두리째 변모시키는 즐거움
 모든 사람들이 노리고 찾고 그리곤 놓쳤다
 암흑, 머릿속으로 타들어 오는 천국
 비극이 절정에 달할 때

근대 한국시사에서 황매천과 이육사와 윤동주가 보여주는 비극적 황홀의 순간들은 그들이 상황에 참여한 방식에 따라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유생이며 전통적 원칙주의자인 황매천은 소극적 저항의 삶을 살면서 비극적인 최후를 선택한다. 그는 일제의 국권 강탈에 항거하여, “난리를 겪어 나온 허여센 머리/죽재도 못 죽는 게 몇 번이더뇨./오늘에는 어찌할 길이 없으니/바람 앞의 촛불이 창공 비추네.”라는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다. ‘바람 앞의 촛불’의 이미지로 자신이 성취한 비극적 황홀의 순간을 표현했던 것이다.

어려서 한학을 배운 이육사의 시는 겉으로는 형식적인 균형과 절제에 바탕을 둔 고전적인 풍격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의 시는 현대적인 혁명가로서의 이상주의를 품고 있다. 혁명가로서의 삶을 가장 힘차게 나타낸 작품 「절정」에서 시인은 자신이 부딪치게 된 식민지 상황을 한계상황으로 표현한다. 시인은 자신이 비극 한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고 ‘겨울’ 즉 ‘매운 계절’을 ‘강철로 된 무지개’로 본 것이다. 이 비극적인 비전은 또 하나의 비극적 황홀의 순간을 나타내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자기가 놓인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 하나의 객관적인 이미지를 발견함을 본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윤동주는 비록 비극적인 종말을 맞기는 했지만, 황매천처럼 가차 없는 비평가도 아니었고, 이육사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투사도 아니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시대를 괴롭게 살다 죽어간 외롭고 양심적인 문학도였다. 그의 생애의 수동적인 외관과는 달리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일종의 황홀 가운데서 꿈꿀 정도로 민족주의적이었다. 그의 소원이 실현될 때까지 “모가지를 드리우고/꽃처럼 피어나는 피”(「십자가」)를 흘림으로써 비극적인 상황에서 놓여나기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인들의 비극적인 비전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비전은 사유와 관조 또는 명상의 산물이었다. 말을 바꾸면 그것은 시인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얻은 충분히 자각된 비전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동양인의 정신에

특유한 초연함과 달관의 상태로 생각된다. 동양에서 비극적인 순간은 흔히 주인공의 신념에 찬 행위보다 초연한 관조 속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예이츠가 생각한 것처럼 동양에는 비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양처럼 열정적이거나 야단스럽지는 않을지라도 그 나름의 비극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다룬 모든 시인에게 공통된 또 하나의 특징은 시인이 그러한 비극적 순간의 작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동양에 있어서 시의 전통적인 개념 및 성질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중국에서 시에 관한 오래된 정의는 ‘마음속에 있는 바의 발언’, 즉 ㉠ ‘언지(言志)’이다. 이러한 뜻에서의 시는 작품과 시인 사이의 구별을 용납하지 않는 개인적이며 서정적인 시이다. 허구로서의 ‘포에시스’의 개념과는 반대로 동양에서 시는 시인 자신의 삶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수양의 일부이며 내면생활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비극이 허구적인 세계에 형상화된 경우로 존재하지 않고, 비극이 있다면 시인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비극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분명 예이츠가 만년에 지적 계획으로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적인 이상으로서 매우 골몰했던 바이다. 그것은 그의 ‘지상 목표’였으며, 그가 “모든 사람들이 노리고 찾고 그리곤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극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 본 세 사람의 한국 시인들은 이 어려운 이상을 그들의 삶과 시에서 실현했으며, 적어도 황매천과 이육사의 경우 그들의 비극적 황홀의 지적 가치는 기이하게도 예이츠의 인식과 흡사했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황매천은 시대 현실에 초연한 덕분에 지적 성취에 성공했다.
- ② 이육사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갈등을 자신의 한계상황으로 인식했다.
- ③ 황매천과 이육사는 예이츠가 추구했던 지적 계획을 실제 삶에서 구현했다.
- ④ 황매천과 윤동주는 원칙과 신념에 따라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 ⑤ 황매천, 이육사, 윤동주는 모두 종교로 인해 빚어지는 내적 갈등을 창작에 담아냈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를 시인의 도야된 인격을 담는 언어적 구성물로 본다.
- ② 시를 시인의 개인적인 서정을 담은 허구적 표현물로 본다.
- ③ 시를 현실을 초월하려는 시인의 의지를 표현한 정신적 생산물로 본다.
- ④ 시를 세련된 언어를 통해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심미적 구조물로 본다.
- ⑤ 시를 시인이 살고 있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문화적 창조물로 본다.

12. 비극적 황홀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인의 비극적 삶은 시에서의 비극적 황홀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② 비극적 황홀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삶 외에 작품을 창작하는 작자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③ 비극적 상황에 놓인 주인공의 비극적 황홀을 통해 독자들의 현실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상적인 서정시이다.
- ④ 비극적 황홀은 주인공의 신념에 찬 행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관조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 ⑤ 햄릿이나 리어 같은 주인공이 도달한 비극적 황홀은 절망적 상황을 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체험이다.